



골든글러브 2루수 나바로가 삼성과 결별한다. 삼성은 미국에서 새 외국인타자를 물색하고 있지만, 내야진의 연쇄 이탈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스포츠동아DB

나바로 계약 불발 삼성왕조에 균열?

박석민 이적 이어 나바로와 협상도 결렬
윤성환·안지만도 내년 시즌 거취 불투명
모기업 제일기획으로 이관…불안감 증폭

21세기 들어 KBO리그에서 ‘왕조’라고 불릴 만한 팀은 SK와 삼성이다. 거대제국의 붕괴가 그라하듯, 두 팀도 외부의 강력한 공세가 아니라 내부의 분열을 막지 못해 위기에 직면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연속 한국시리즈에 올랐던 SK는 최근 3년간 4강에 들지 못하는 후유증을 겪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정규시즌 5연패를 달성한 삼성도 거듭되는 전력유출 속에 왕조의 연속이 달린 고비를 맞고 있다.

●삼성, 강력한 라인업에 균열 발생

삼성이 달성한 정규시즌 5연패, 한국시리즈 4연패(2011~2014년)의 등뼈는 강력한 야수진이었다. 공격과 수비, 그리고 경험에 걸쳐서 가장 짜임새 있는 라인업을 자랑했다. “대구구장에 최적화된 타선”이란 찬사를 들었다. 그러나 내부 프리에이전트(FA)인 3루수 박석민(30)을 NC에 빼앗긴 데 이어 23일 2루수 야마이코 나바로(28)와의 잔류계약 결렬이라는 악재가 터졌다.

삼성 스카우트팀장은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미국에서 나바로의 대안을 찾는 작업

이 미리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삼성은 나바로와의 협상에서 “성실”을 재계약 조건으로 내걸었다. 여기에 나바로가 불편함을 느끼자 판이 깨지는 결별 조짐이 감지됐다.

중심타선을 구성한 2명의 우타자, 주전 2루수와 3루수의 동시이탈로 삼성의 전력누수는 심화됐다. 마운드에서도 해외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마무리 임창용(39)이 방출된 상태이고, 1선발 윤성환(34)과 셋업맨 안지만(32)의 2016시즌 거취는 불투명하다.

●‘불안한’ 삼성, 위기 탈출 동력은 어디에?

2016년부터 야구단의 모기업이 제일기획으로 이관되면서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미 삼성은 9~10일 열렸던 KBO 윈터미팅에서 메리트(승리수당) 폐지에 찬성하며 리그 전체에 ‘긴축의 공포’를 안겼다. 새로 영입한 외국인투수 2명(엘런 웨스터 85만 달러·폴린 벨레스터 50만 달러)도 상대적으로 거물급이 아니다. 그러나 삼성 내부적으로는 두 투수에 대해 믿음을 표시하고 있다. 여론의 따가운 시선과 별개로 윤성환, 안지만이 2016시즌에 던질 수 있다면 마운드 전력의 누수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박석민이 빠져들더라도 삼성 야수진은 두껍기로 유명하다. 내야진 보강을 위해 대만의 강타자 린즈성(33)을 영입하는 것 아니냐는 무어에 대해 삼성은 부정했다. 나바로를 대신할 리스트를 마련해줬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구멍난’ 삼성·넥센·두산…순위 요동칠까

넥센, 박병호·밴헤켄 등 출혈 가장 커
김현수 ML 확정적…두산도 전력누수

2010년대 들어 ‘절대강자’의 지위를 놓치지 않았던 삼성과 최근 포스트시즌 단골손님으로 자리 잡은 넥센의 전력누수가 눈에 띈다. 마운드에서 에이스, 불펜의 핵, 마무리가 빠졌고, 타선에서도 2명의 핵심 멤버가 유출됐다.

삼성은 FA(프리에이전트) 시장에서 박석민을 NC에 빼앗겼다. 게다가 야마이코 나바로와 사실상 결별했다. 올 시즌 박석민은 타율 0.321, 26홈런, 116타점을 올리며 3루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다. 나바로는 역대 외국인선수 시즌 최다홈런 신기록인 48홈런과 함께 137타점을 올리며 2루수 부문 황금장갑을 차지했다. 여기에 올 시즌 세이브왕(33세이브) 임창용을 방출했고, 17승을 올린 에이스 윤성환과 홀드왕(37홀드) 안지만은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내년 전력에 들어올 수 있을지 계산이 어렵다.

넥센도 비슷하다. 4번타자 박병호(타율 0.343·53홈런·143타점·사진)가 메이저리그(미네소타)에 진출했고, 최다안타 1위(188안타)와 타격 2위(타율 0.362)에 빛나는 유한준이 FA로



팔꿈치 인대접합수술로 내년 시즌 전력에서 제외됐다. 양 팀은 내년 시즌 새 구장 시대를 맞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삼성과 넥센에는 비할 바 못 되지만 올해 우승팀 두산도 4번타자 김현수가 메이저리그(볼티모어) 진출이 확정적이라 구멍이 생겼다. 5월로 포스트시즌에 턱걸이한 SK 역시 불펜의 핵인 정우람과 윤길현이 FA로 각각 한화과 롯데로 이적한 상태다.

반면 올 시즌 5강 중 박석민을 영입한 NC만 유일하게 전력을 보강한 팀으로 꼽힌다. 하위권 팀 중 롯데, 한화, LG, kt 등은 FA 영입 등으로 전력을 강화했다. KIA는 170만달러 외국인투수 헥터 노에시를 영입했다. 상위권 팀들은 약속이나 한 듯 전력이 도미노처럼 유출되고, 하위권 팀들은 전력을 보강했다. 2016시즌 전망은 그야말로 예측불허다. 춘추전국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동부 허웅과 두경민, KGC 김기운, 삼성 임동섭(왼쪽부터) 등이 ‘2015~2016 KCC 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기량으로 두각을 드러내면서 KBL 기량발전상(MIP)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사진제공 | KBL

동부 허웅·두경민의 진화…MIP 집안싸움

(기량발전상)

바스켓볼 브레이크

올 시즌 급성장한 선수는 누구?

허웅·두경민, 동부 가드진 세대교체 주역
KGC 김기운·삼성 임동섭도 가파른 성장
급성장한 맥키네스는 용병이라 자격 안돼



프로농구를 보는 모미 중 하나는 시즌 도중 열린 드래프트를 통해 각 팀에 합류한 신인들의 활약상이다. 프로농구에는 매년 꾸준히 눈에 띄는 신인들이 등장했지만, 올 시즌 신인들의 활약상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2015신인드래프트 1순위로 뽑힌 문성곤(KGC)은 출전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반면 프로 2~4년차의 젊은 선수들의 성장세는 놀랍다. 현재에선 ‘올 시즌은 신인상보다 MIP(기량발전상) 경쟁이 더 뜨거울 것 같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눈에 띄는 MIP 후보는?

올 시즌에는 유독 기량이 급성장한 선수들이 많다. 동부의 백코트를 책임지고 있는 허웅(22·2년차)과 두경민(24·3년차)이 대표적이다. 허재 전 KCC 감독의 아들로 유명한 허웅은 동부에 없어선 안 될 선수로 성장했다. 데뷔 시즌(2014~2015시즌) 평균 16분42초를 뛰며 4.8점·1.5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적을기를 거친 그는 올 시즌 출장시간이 평균 32분14초로 대폭 늘었다. 성적도 평균 12.3점·3.0어시스트·1.2스틸로 자연스럽게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시즌 평균 8.0점을 올렸던 두경민은 올 시즌 경기당 12.3점을 기록 중이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플레이가 산만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올 시즌에는 안정감이 생겼다. 허웅과 두경민의 동반성장 속에 동부는 가드진의 세대교체에도 성공했다.

KGC 포인트가드 김기운(23·2년차), 삼성 장신슈터 임동섭(25·4년차)도 빼놓을 수 없다. 대학시절 ‘제2의 김태술’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김기운은 올 시즌 평균 22분40초 동안 8.8점·2.7어시스트를 기록 중이다. 지난 시즌은 3.6점

·1.6어시스트였다. 상대의 지역방어를 잘 깨는 패스 능력을 갖춰 김승기(44) 감독대행의 든든한 신뢰를 얻고 있다. 임동섭은 올 시즌 평균 11.4점·3.5리바운드에 경기당 2.2개의 3점슛을 성공시키고 있다. 성공률도 37.9%로 준수해 슈터가 절실했던 삼성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맥키네스가 MIP 후보가 될 수 없는 이유

기량이 급성장한 것은 국내선수만이 아니다. 외국인선수도 있다. 동부 웰렐 맥키네스(27)가 그 주인공이다. 2013~2014시즌 KGC에서 편견 없이 있는 맥키네스는 당시 평균 7.0점·4.6리바운드의 초라한 성적을 남겼다. 그러나 올 시즌은 레벨이 다른 선수가 됐다. 평균 20.6점·9.2리바운드·2.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동부의 주축 선수로 발돋움했다. 1라운드 부진에 빠진 동부가 반동의 계기를 마련한 것도 맥키네스 덕분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맥키네스는 MIP 수상 자격이 없다. KBL은 MIP 자격기준에서 ‘신인선수 및 외국인선수는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kt 조동현 감독 ‘7연패 스트레스’

“매일 잠 못 이루는 밤”

남자프로농구 kt 조동현(39·사진) 감독이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kt(12승20패·7위)는 최근 7연패의 늪에 빠져 있다. 주포 조성민(32)의 부상에도 외국인선수 마커스 블레이크리(27)와 나머지 선수들의 급격한 페이스 및 체력 저하까지 겹쳐 총체적 난국을 헤매고 있다. 특히 공격력이 바닥인데, 7연패를 당하는 동안 80점 이상을 올린 것은 단 1경기뿐이다.

극심한 부진 속에 6위 동부(18승14패)의 격차도 6경기까지 벌어졌다. 현재로선 플레이오프 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올 시즌 사령탑으로 데뷔한 조 감독의 마음이 편할 리 없다. 매일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 피로도 거칠어지고, 입 주위는 다 뒀다. 조 감독은 “코치생활을 할 때와는 격이 다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입 주위가 트 것은 벌써 오래전이다. 흰머리가 나고 탈모 증세까지 있다. 평생 담배를 입에 문 적이 없는데, 최근에는 담배까지 피우곤 한다”고 밝혔다.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조 감독은 “감독 부임 직후 FA(자유계약선수) 영입에 큰 욕심이 없었다. FA를 데려오는 것보다 기존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사기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보니 문태중(오리온)을 잡았어야 했다 싶다”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어 “모비스에서 코치생활을 하면서 익힌 시스템을 적용하려 했는데, 한 번에 하려니 선수들도 잘 못 따라오고 시행착오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래도 젊은 선수들의 성장에서 위안을 찾고 있다. 조 감독은 “경기에서 패하는 것은 너무 힘들지만, 우리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고 선수들의 실력이 느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겁다. 이 고비를 선수들과 함께 잘 이겨내고 싶다”고 다짐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신한은행 게이틀링 “파워는 내가 1등”



신한은행 센터 하은주(32·202cm)는 포지션의 특성상 외국인선수들과 골밑 대결을 펼치는 일이 잦다. 하은주가 가장 상대하기 힘든 선수로 꼽은 인물은 의외로 같은 팀의 마케이사 게이틀링(23·197cm·사진)이었다. 하은주는 “다른 팀에 파워가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우리 팀의 게이틀링이 가장 막기 힘들다. 훈련 때 간혹 상대해보면 현재 리

그에서 뛰는 선수 중 몸싸움을 가장 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게이틀링은 ‘KDB생명 2015~2016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14경기에서 평균 15분 31초를 뛰며 8.07점·5.29리바운드를 기록 중이다. 평범한 수준이지만, 21일 KEB하나은행전에선 26점·16리바운드를 올리며 첼시 리와의 맞대결에서 완승을 거뒀다.

하은주의 말을 전해들은 게이틀링은 “WNBA(미국여자프로농구)에서 상대해본 선수들이 많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삼성생명 엠버 해리스가 까다로운 상대이고, 파워가 좋은 첼시 리를 상대함에 있어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스스로도 리그에서 파워가 제일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아마도”라고 답하며 웃었다.

게이틀링 옆에 자리했던 신정자는 “게이틀링이 파워도 좋지만 잔기술이 매우 뛰어나다. 골밑에서 몸싸움을 하면서도 넣어주는 패스를 잘 받고, 슈팅 능력도 좋다”며 “시즌 초반 허리가 좋지 않아 기대만큼 활약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다. 기대해달라”고 응원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하은주 “리그서 몸싸움 최고”
신정자 “잔기술도 뛰어나다”